



China Weekly



2014. 1. 13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1. 본 *China Weekly*의 내용문의 또는 구독신청은 한국은행 북경사무소(Tel: 6505-987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China Weekly*를 인용 또는 재배포 하실 경우 그 출처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 초점	1
□ 중국의 Shadow Banking 규제 강화 및 민자은행 설립 추진 동향 및 평가	
□ 아시아 신흥국의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 및 평가	
□ 중국과 ASEAN 국가간 위안화 이용 현황 및 시사점	
■ 주요 내외신 동향	13
□ 거시경제 : 부동산등기제도, 금년 6월말 이전 발표 예정	
□ 외환무역 : 2013년 중국 수출입 규모, 4조달러 상회	
□ 금 융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험자금 활용 증시 부양책 제시	
■ 중국경제 일정표	17
■ 한국은행 주요 발표자료	18
□ 2014년 경제전망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회의」 참석 결과	
■ 불 임 : 주요 중국경제통계	

《금주 초점》

중국의 Shadow Banking 규제 강화 및 민자은행 설립 추진 동향 및 평가

- ◇ 중국의 신정부는 새해 들어 금융개혁 등 경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 강화와 민자은행 설립** 등 금융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연이어 발표

(주요 내용)

① Shadow Banking 규제 강화

- 중국 국무원은 Shadow Banking 규제 강화와 관련된 문건(107號件)에서 **중국인민은행, 은감회, 증감회 등 정책당국의 감독책임 범위를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감독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新浪財經, 1.6)

① (Shadow Banking에 대한 자체 평가) 중국 Shadow Banking은 **금융혁신의 필연적 결과**인 동시에 전통적 은행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와 개인의 투자경로 다양화 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아울러 중국의 Shadow Banking을 감독 측면에서 분류할 경우 주로 **3가지로 구분**된다고 정의
 - ① 금융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신형인터넷금융회사, 자산관리상품중개회사** 등
 - ② 금융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감독이 미흡한 **융자담보회사, 소액대출회사** 등
 - ③ 금융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감독이 미흡하거나 감독을 받지 않는 **MMF, 자산유동화, 자산관리 업무** 등

② (감독책임의 범위 명확화) **종합적 감독책임을 중국인민은행에 부여**하되 금융기관별, 상품별로 **해당 인가기관에 감독책임**을 부여

- 인민은행은 Shadow Banking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과 함께 복합자산관리상품 및 중개기관 취급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비금융기관의 자산유동화, 인터넷 금융업무 등에 대해서는 은감회와 공동으로 감독업무를 수행

- **은감회**는 은행의 자산관리상품, **증감회**는 증권선물기관 및 각종 사모투자기금의 자산관리상품, **보감회**는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감독책임을 담당
- 한편 **용자담보회사**의 경우 은감회가 관련 규정을 제정·운용하되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감독책임을 담당

3 (감독관련 규정의 개선) 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금융회사별로 **감독관리방법, 경영관리규칙 및 리스크관리제도 등을 제정·운영**

- **(상업은행)** 위탁자금(자산관리상품)과 자체조달자금(예금)의 분리사용, 자행대출상품의 매입 금지, 자산관리상품의 Cash Pooling 업무 취급 금지 등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철저히 matching하고 증권회사는 순자산관리를, 보험회사는 상환능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신탁회사)** Shadow Banking의 성격을 가진 비표준화된 자산관리상품의 Cash Pooling 업무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업무범위를 본연의 신탁업무로 제한
- **(소액대출회사)** 자체조달자금으로 대출을 취급하며 리스크를 자신이 부담하는 비금융기관이므로 자율규제조치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예금수취·고금리대출·불법대출 등의 금지의무를 준수
- **(자금리스회사)** 보관물을 임의로 위탁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다시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본연의 업무만 취급하도록 규제를 강화

4 (중앙 감독기관과 지방정부간 관계 정립) 중앙 감독기관은 Shadow Banking 업무 관련 규정을 제정·운용하되 지방정부는 중앙 감독기관의 규정과 현지상황을 반영하여 **지방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의 조기 예방 및 단계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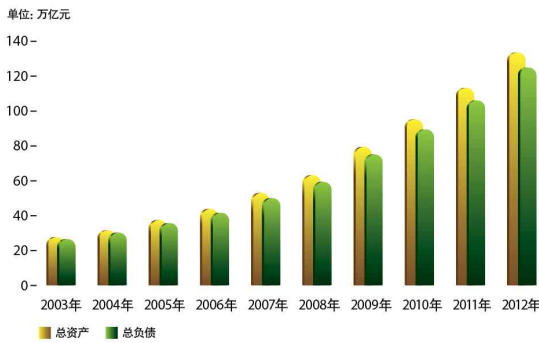
- 아울러 **지방정부는 중앙감독기관의 지도**하에 지역 금융기관에 위법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각종 불법 대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인 자금모집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

2 민자은행 설립 추진

- 중국 은감회는 2014년 全國銀行業監管工作會議(1.6)에서 국유상업은행 위주의 은행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중 **시범적으로 3~5개의 민자은행을 설립**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추가 설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신경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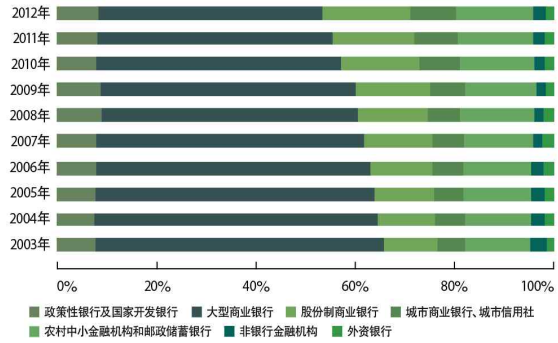
- 민자은행 설립은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 전회』에서 **민간자본의 은행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재 국가공상총국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민자은행은 67개로 이중에는 蘇寧(Suning), 美的(Medeia), 騰迅(Tencent) 등 30개의 상장기업(12개 업종)도 포함

은행업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현황



자료 : 중국은감회 연보

은행업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자료 : 중국은감회 연보

□ 한편 현재 민자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미 자본금을 확보한 **8개 은행의 총 자본금규모는 200억위안**을 상회(증권일보, 1.7)

- 사천성의 경우 기업그룹 및 유명대학 EMBA 출신 기업인들이 공동으로 민자은행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華西都市報, 1.8)

- Hongda그룹(弘達集團)은 蜀商銀行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공상총국의 예비심사를 득하고 국무원 최종비준(금년 3월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자본금 규모는 30~100억위안으로 중국 서부지역 제1의 민자은행으로 출범하기를 희망
- Fulin그룹(富林集團)은 錦陽市 商業銀行의 2대 주주, 華西證券의 3대 주주로 天府銀行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공상총국의 예비심사를 득하고 (2014.1.3) 국무원 최종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자본금 규모는 10억위안 (Fulin그룹 출자비중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川商銀行은 유명대학 EMBA 출신 11명의 기업인들이 공동으로 설립할 민자은행으로 국가공상총국의 예비심사를 득하고(2013.12.30) 국무원 최종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자본금 규모는 20억위안으로 2015년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임

(전문가 평가 및 전망)

- 국무원 등을 중심으로 Shadow Banking에 대한 구체적 감독기준이 마련될 경우 중국의 **Shadow Banking 규모는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위축될** 것으로 전망
 - 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전체 사회융자총액과 고정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시장의 붕괴 또는 채무불이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구조 재편(debt restructuring)** 등의 **조치가** **긴요한** 것으로 평가(중국사회과학원 Liu Yuhui 주임)
 - Shadow Banking에 의한 자금공급을 제한할 경우 **부동산시장 진정 및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중금공사 Peng Wensheng 수석연구원)
 - 다만 금융감독과 금융혁신은 고양이와 쥐의 게임으로 금융기관의 감독차익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앞으로 **새로운 규제회피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가 민자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독점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의 일환으로써 **금융기관의 다양화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
 - 민자은행은 규모가 작고 경영체계가 비교적 유연하고 주요 고객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결정력이 비교적 강해 **수익률은 국유은행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중앙재경대 Guo Tianyong 교수)
 - 민자은행은 현 중국의 금융산업구조 하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전인대 재경위 Wu Shaoling 부주석)
 - 다만 새로 설립된 민자은행이 기존 은행과의 경쟁에서 생존하여 **당기 순이익을 창출**하는데에는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巨人網絡 She Yuzhu 대표)

아시아 신흥국의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 및 평가

(홍콩주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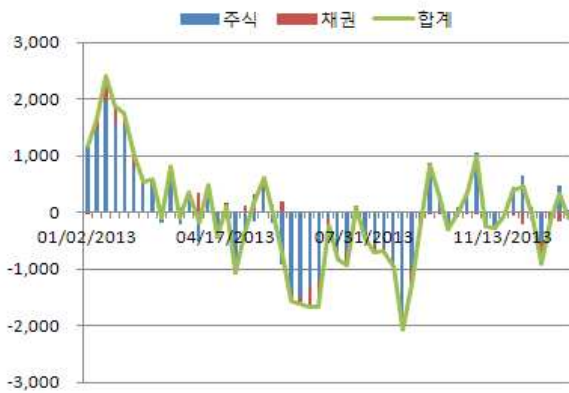
(최근 신흥국의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우려 대두)

- 최근 IB 투자전망보고서, 언론, 국제세미나 등에서 글로벌 투자자금의 흐름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크게 전환될 가능성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음
 - Goldman Sachs는 신흥국들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경제개혁 부진 등으로 향후 5~10년간 이들 국가의 주식, 채권 및 통화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크게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동 투자비중을 1/3 정도 축소(위험선호가 중간 수준인 투자자 기준: 9% → 6%)할 것을 권고하고, JP Morgan은 향후 신흥국의 현지통화표시 채권수익률이 과거 10년간 평균의 1/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
 - 블룸버그는 Goldman Sachs, JP Morgan, Morgan Stanley 등의 신흥국 투자축소 권고내용을 보도하고(1.7~8일), AWSJ도 "Losses in Asian Market Pick Up in 2014" 제하의 기사에서 금년들어 정치적 리스크와 성장전망 약화 등으로 동남아시아 금융자산에 대한 매각(sell-off)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1.8일)
 - 한편 Credit Agricole은 1.8일 "The Tide Recede"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 연준의 tapering이 진행되는 가운데 동남아 국가들의 경기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미흡(Asia : losing its magic)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통화 및 채권 투자에 위험이 크다고 분석

(아시아 신흥국의 투자자금 흐름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미 연준의 tapering 결정(12.18일) 이후 아시아 신흥국의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은 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작년 6~9월중 tapering 이슈 부각시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였던 시기와는 차이가 있음
 - 채권투자자금의 경우 작년 6월 이후의 유출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11월말이후 동 규모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주식투자자금은 10월 이후 대체로 순유입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아시아 신흥국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주간)



자료: EPFR

아시아 신흥국 증권투자자금 유출입(누계)



자료: EP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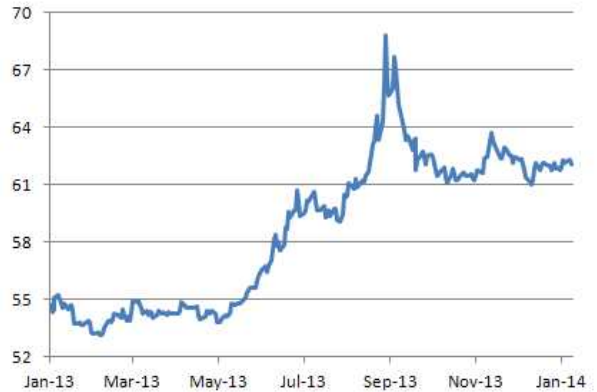
- 경상수지 적자 등 취약한 경제 펀더멘탈로 인해 작년 여름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였던 국가중 인도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나, 정치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태국과 경제구조의 rebalancing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자금유출이 지속
-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신임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시장의 신뢰 등으로 채권투자자금 유출이 주춤해진 가운데 주식투자자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환율(Rupee)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인도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자료: Bloomberg

Rupee 환율(미달러화 대비)



자료: Bloomberg

- 태국은 지난해 12월이후 주식투자자금이 11억달러 순유출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채권매도도 지속*되면서 1.6일에는 통화 가치가 2010.2월 이후 최저수준인 달러당 33.08바트를 기록

* IMF는 1.8일자 "Golbal Markets Monitor"에서 최근 3일간 외국인의 채권매각 규모가 약 1.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인도네시아도 연준의 tapering 결정 이후 2주간 약 3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이탈

태국 주식투자자금 유출입 및 주가



자료: Bloomberg

인도네시아 주식투자자금 유출입 및 주가



자료: Bloomberg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것은 정책당국과 시장의 대비 등에 기인)

- 미 연준의 tapering 결정 이후 아시아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의 주요 요인인 ① 선진국과 신흥국간 성장률 격차 ② 선진국과 신흥국간 이자율 격차 ③ 위험 선호도(level of global risk aversion) 등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13.6~9월에는 tapering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에서 risk-off 경향이 크게 나타났던 데다 신흥국과 선진국간 금리격차가 크게 축소되고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컸었음

- 시장의 예상에 비해 tapering 시작 시기가 다소 빠르기는 하였으나, 자산 매입 축소 규모(매월 850억달러 → 750억달러)가 작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이미 상당폭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위험선호가 크게 약화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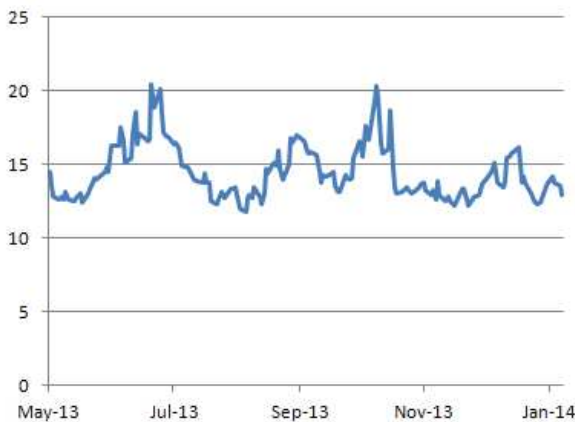
-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신흥국(10년물 기준) 금리는 작년 5월말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미국채와의 금리격차가 tapering 이슈 부각(2013.5.22일)이전에 비해 확대

* 2013.12.18일 2.88% → 12.27일 3.01% → 2014.1.1일 3.04% → 1.8일 2.99%

- 인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경제구조 개선 및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작년 여름에 비해 중국의 실물경제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됨

* 정책금리 인상(인도네시아 175bp, 인도 50bp), 수입억제 정책,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VIX 지수



자료: Bloomberg

미국과의 금리격차(국채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향후 아시아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 등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

- 시장참가자들은 미연준의 tapering 실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014년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률은 2013년에 비해 다소 높아지겠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개선폭이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 지역내 경제규모와 여타국가에 대한 영향이 큰 국가들(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구조개혁(reform) 및 경제구조 rebalancing 추진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2015년 이후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에 따라 일부 투자은행들은 중기적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
- 향후 미연준의 tapering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가속화 되면 선진국의 채권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결국 아시아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capital outflow)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대부분의 IB들은 2014년말 미국채 금리(10년물 기준)가 3.4% <블룸버그 전망치 평균>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특히 향후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와 이에 따른 tapering 추진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상존
- 한편 작년 5월 tapering 이슈 부각 이후 아시아 신흥국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펀더멘탈이 양호한 국가의 금융시장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이들 국가도 향후 글로벌 여건변화에 따라 신흥국 전체에 대한 포트폴리오자금 배분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중국과 ASEAN 국가간 위안화 이용 현황 및 시사점

- 중국 윈난성 지역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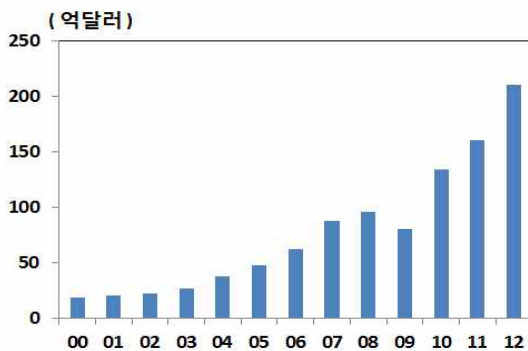
1. 국경간 위안화 사용 현황

□ 중국 윈난성은 위안화 무역결제에 처음으로 실시된 지역으로* ASEAN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 심화에 따라 국경간 위안화 이용이 확대

* 2010년 위안화 무역결제에 본격화되기 이전 베트남·미얀마·라오스와의 변경 무역(2004년), 태국과의 일반무역(2005년), ASEAN과의 상품무역(2008년) 등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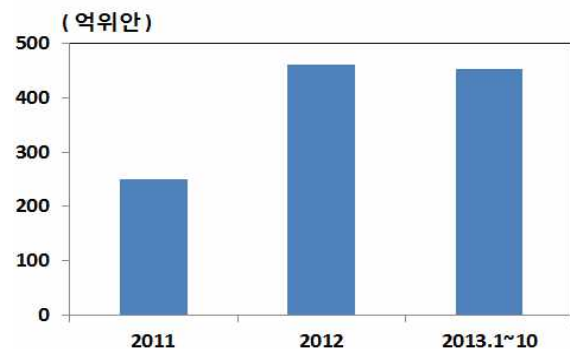
- 윈난성은 베트남·미얀마 등 메콩강유역 5개국(GMS : Greater Mekong Subregion)과 주로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데 윈난성 소재 1,300여개 기업이 국경간 위안화 결제에 참여
- 윈난성의 국경간 위안화결제액(FDI 등 자본거래 포함)은 2012년 461억위안으로 전년대비 84% 늘어난 데 이어 2013.1~10월에도 45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
 - 2012년 윈난성의 수출입(1,325억위안)에서 위안화결제(260억위안)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전국 평균(12%)을 상당폭 상회
 - 2010.7월 전면적 위안화무역결제 시범조치 실시 이후 2013.10월까지 윈난성의 국경간 위안화결제 누적액은 1,200억위안 수준

윈난성 수출입



자료 : 국가통계국

윈난성 국경간 위안화결제



자료 : 인민은행 쿤밍중심지행

- 한편 위안화는 베트남·미얀마·라오스 3국 민간부문의 위안화보유액이 500억위안을 상회하고 변경무역의 95% 이상이 위안화로 결제되는 등 인접국에서는 이미 수용도가 높은 지급결제통화로 활용

□ 국경간 위안화 결제, 주변국 통화 환전, 위안화 해외투자펀드 조성 등
윈난성 금융기관의 국경간 위안화 업무도 발전

- 윈난성 소재 공상은행 · 건설은행 · 농업은행 · 부전은행 등은 베트남 · 미얀마 · 라오스 · 태국 · 싱가포르 등의 금융기관과 국경간 위안화결제협력 합의서를 체결
- 베트남 동화(2004.11) 및 라오스 킵화(2011.6월) 환전업무 개시, 윈난성 지역은행간 위안화-바트화 외환시장 개설(2011.11월), 태국으로부터 바트화를 직접 조달하여 바트화 환전 개시(2013.12월말) 등 **위안화와 주변국 통화간 교환거래 확대**
- 2013.4월 윈난원명주식투자기금관리유한공사(云南云盟股權投資基金管理有限公司)를 설립하여 2012.4월 설립된 상하이 사이링국제발전투자기금(上海賽領國際發展投資基)에 이어 두 번째로 **위안화 해외투자펀드를 조성**
 - * 위안화 해외투자펀드는 중국내 모기금이 역외 자기금에 위안화자금을 공급하고 자기금은 현지 투자 또는 대출하는 모자기금 형식으로 운용되며 수익금은 위안화 형태로 중국으로 송금 가능

2. 향후 전망

□ 윈난성은 이미 ASEAN과의 국경간 위안화 이용이 활발한 지역인 데다 중국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육성하고 있어 **향후 국경간 위안화업무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

- 인민은행 등 11개 중국정부부처가 작성한 윈난성 및 광시장족자치구 금융종합개혁 시범지역 설치방안(2013.11.21)에서도 **10대 개혁과제 중 첫 번째로 ‘국경간 위안화업무 혁신’***을 지정
 - * 해외기관의 위안화결제계좌 개설, 출입국 현금휴대제도 혁신, 위안화와 비준비 통화간 태환범위 확대, 위안화와 주변국 통화간 외환시장 설립, ASEAN 및 남아시아에 대한 통화스왑 확대 및 RQFII 투자한도 배정, 위안화 해외투자펀드 및 해외 위안화펀드 조성 등을 추진
- 태국에 이어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 **위안화와 주변국 통화간 외환시장 개설을 확대할 계획**이며, 환율자유화 추진에 따라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각종 위안화 파생상품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윈난성 루이리(瑞麗) 등 보세지역에서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베트남 · 라오스 · 미얀마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안화의 양성화 및 역외 위안화시장 발전을 추진**

- 또한 원난성은 2010년 ASEAN과의 FTA가 발효된 데 이어 ASEAN 및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수송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어 향후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네트워크 외부경제효과(network externalities)**로 **위안화 결제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

* “(참고) 원난성의 ASEAN 및 남아시아 연결 교통수송 인프라 구축 현황” 참조
 ** 원난성의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와의 교역규모는 2000년 4천만달러에 불과 하였으나 2012년에는 28억달러로 급증

3. 시사점

- 국경간 위안화업무 관련 원난성과 주변국간 협력은 **우리나라와 경제무역관계가 밀접한 산동성 등과의 금융협력 추진시 best practice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정부는 위안화 뿐만아니라 주변국 통화의 국경간 사용확대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화 국제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

*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는 2011년부터 한-중간 무역 및 투자 편의 제고를 위해 중국 및 한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한-중간 원화결제 활성화를 추진

- 원난성의 위안화와 주변국 통화간 외환시장 개설, 주변국 민간보유 위안화자금 양성화 추진사례는 향후 위안화-원화간 외환시장 개설, 중국내 민간보유 원화자금 양성화 추진 시 참고 가능

- 또한 원난성은 중국과 ASEAN 및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두보(gateway)로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 등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

- 원난성은 향후 5년간 금융혁신 강화, 금융개방 확대, 주변국과의 금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다원화된 현대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원난성 쿤밍시는 ASEAN 및 남아시아에 대한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원난성과 ASEAN 및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수송 인프라 구축은 우리나라 정부의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및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유라시안 실크로드**’ 구상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참고>

원난성의 ASEAN 및 남아시아 연결 교통수송 인프라 구축 현황

- 원난성은 베트남·미얀마·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중국과 ASEAN 및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수송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음
 - 원난성 쿤밍시와 싱가포르를 기착점으로 라오스·미얀마·베트남을 횡단하는 범아시아 고속철도(Trans-Asian Railroads)가 건설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기본적인 공사를 완료할 계획
 - 미얀마에서 중국 원난성·구이저우성·광시장족자치구·충칭시로 이어지는 천연가스관이 2013년 완공되었으며 송유관도 조만간 완공될 예정
 - 중국과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수송 인프라도 2013.12.18일 쿤밍에서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BCIM)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구축을 위한 제1차 study group 회의가 개최되는 등 조만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

범아시아 고속철도



미얀마-중국 송유·가스관



《주요 내외신 동향》

거시경제

1. 부동산등기제도, 금년 6월말 이전 발표 예정

- 국토자원부 Xu Deming 부부장은 2014년 전국국토자원공작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부동산등기국을 조속히 설립하여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개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년 6월말까지는 『부동산통일등기조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1.13일, 증권일보)
 - 국무원은 작년 양회를 앞두고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무변동방안 보고(2013.2.28)』에서 부동산통일등기제도 실시와 『부동산등기조례』를 2014.6월말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부동산통일등기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 가격안정정책에 있어 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전국의 부동산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개인별 부동산 보유량을 계산할 수 있어 다양한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책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中原地產 Zhang Dawei 대표)
 - 다만 통일등기제도는 일부 계층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일부 계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북경대 Chen Guoqiang 교수)

2. 2013.12월 CPI상승률 2.5%로 전월보다 둔화

- 2013.12월 중국의 CPI상승률은 2.5%로 전월(3.0%)보다 0.5%p 하락하였으며 2013년 연간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6% 상승하며 연초목표 3.5%를 크게 하회(1.9일 국가통계국)
 - 식료품가격은 4.1% 상승한 반면 비식료품가격은 1.7% 상승에 그쳤으며 물품가격은 2.2% 상승하였으나 서비스가격은 3.3% 상승
 - 식료품가격은 유지와 계란이 4.1% 하락하였으나 과일이 15.6% 상승하였으며 수산물도 5.5% 상승하였고 육류는 소고기가 크게 상승하였

으나 전체적으로는 3.6% 상승(돼지 1.6%, 소 14.3%, 양 11.4%)

- 비식료품가격은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가 2.9%, 임차료 등 주거비용이 2.8% 상승하였으나 술·담배 등 기호식품이 0.4%, 교통·통신요금이 0.1% 하락

- 한편 2013.12월 공업생산자출고가(PPI)는 전월과 같은 1.4% 하락하였으며 2013년 연간으로는 1.9% 하락하며 전년(-1.7%)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

외환무역

3. 2013년 중국 수출입 규모, 4조달러 상회

- 2013년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전년대비 7.6% 증가한 4조 1,603억달러로 처음으로 4조달러를 상회(1.11일, 금융시보)

- 수출은 2조 2,100억달러로 전년대비 7.9%, 수입은 1조 9,503억달러로 7.3%, 무역흑자는 2,598억달러로 12.8% 증가

- 2013년도 중국의 5대 무역상대국은 EU·미국·ASEAN·홍콩·일본이며 수출입에서 EU·미국·일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한 반면 ASEAN 등 신흥시장국 비중은 상승

- 한편 중국의 대한국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7.0% 증가한 2,743억달러로 5.1% 감소한 일본(3,126억달러)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중 교역액이 일본기업의 중국 현지 원부자재 조달비율 상승(2010년 58% → 2013년 64%), 센카쿠 열도 문제 등에 따른 중국인들의 일본제품 기피현상 등으로 향후 3년내 중-일간 교역액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한편 Li Jian 상무부 대외무역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은 2014년도 중국의 수출입은 2013년 4분기 이후 대외수요 회복이 지속되면서 2013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

-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Liu Xuezhi 연구원은 글로벌 무역 회복으로 2014년 중국 수출증가율이 8.5% 내외, 수입 증가율은 8%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대외무역 관련 주요 도전과제는 ① 위안화 절상 지속, ②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수요 충족 곤란, ③ 인건비·임차료 등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④ 무역마찰 증가 등을 거론

4. 유럽, RQFII ETF 최초 상장

- 남방동영자산관리유한공사(CSOP)와 영국거래소펀드매매기관인 Source는 공동으로 1.9일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중국 본토 50대 기업을 포괄하는 남방동영-Source FTSE China A50을 상장(1.10일, 제일재경보)
 - 이는 처음으로 RQFII 제도*를 이용한 투자상품이 유럽 증권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글로벌 투자자에 대한 중국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와 역외 위안화센터로서 런던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 * RQFII 제도는 2011년부터 개시되었으며 역외 위안화를 이용하여 주식, 채권, 단기 금융상품 등 중국 본토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동 ETF의 RQFII 쿼터는 15억위안으로 시장수요가 양호하여 1.3일 initial order시 쿼터의 94.3%인 14억 2천만위안을 모집
 - 한편 국가외환관리국(SAFE)에 따르면 2013.12.25일 현재 52개 RQFII에 대해 총 1,575억위안의 쿼터가 승인된 것으로 조사

금융

5.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험자금 활용 증시 부양책 제시

- 중국보험감독위원회(CIRC)는 보험자산의 차스닥 상장사 주식투자 허용(1.7일) 및 장기보험자금의 100% 우량주식 투자 허용(1.8일) 등 증시 부양책을 제시(1.8일, 1.9일, 상해증권보)
 - 향후 보험사는 직접 또는 위탁 형태를 통해 차스닥 증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주로 신규 IPO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
 - 전문가들은 현재 IPO확정 기업(83개) 중 차스닥 상장 예정 기업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동 조치는 IPO 신규 물량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한편 2013.11월말 중국 보험업계 자산총액(8조 904억위안) 및 단일 보험사의 주식 투자비율 제한(직전 분기 회사 총자산의 25% 이내) 등을 감안할 때 보험자산의 차스닥 투자 가능 규모는 최대 2조 200억위안 수준으로 추산
 - 또한 장기보험자금(1999년 이전 출시된 고수익률 장기생명보험 자금)의 경우 보험사 증시 투자시 전체 보험자금의 20%를 하회해야 하는 규제를 받

지 않고 우량주에 대해 100%까지 투자를 허용기로 결정

-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장기보험자금의 규모가 4,000억위안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동 자금의 우량주 매입 정책은 증시 수요기반 강화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6. 2013년 M2 증가율 13.9% 예상

- 국내외 21개 chief economist의 전망(13.5%~14.4%)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M2 증가율은 13.9%로 11월말 14.2%보다 둔화되겠으나 연간 목표치(13%)를 상당폭 상회한 것으로 예상(1.6일, 제일재경일보)
- 또한 2014년에도 M2증가 규모는 15조위안을 상회하여 연간증가율이 14%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한편 위안화 신규대출규모의 경우 12월중 5,900억위안 증가하여 연간 증가 규모가 9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14년에도 신규대출규모는 9~10조위안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

7. Li DaoKui 교수, 주택담보대출 증권화 주장

-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Li Daokui 칭화대 교수는 18기 중국자본시장 세미나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를 통해 은행의 자본금 확충수요 감소와 이윤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1.13일, 중국증권보)
- 중국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0조위안이며 대출금리가 5.5~6.2%로 국채금리(4.3~4.4%)보다 높으나 주택구입시 높은 선납계약금 비율 및 중국인들의 양호한 신용상태로 리스크는 매우 낮은 수준
-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증권화를 통해 현금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자본금 확충수요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필요
- 또한 중국은 이미 자산증권화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규모가 미미하여 주택담보대출 증권화를 통해 주가 상승 및 금융체제 개혁에 유리

《중국경제 일정표》

날짜	일정	주요 내용
1.20(월)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4분기 GDP ○ 2013년 12월 공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총액

《한국은행 주요 발표자료》

2014년 경제전망

I. 국내외 경제여건

<국외 여건>

① 세계경제

□ 금년중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미국)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욱 강화

- 고용증대에 따른 소득향상,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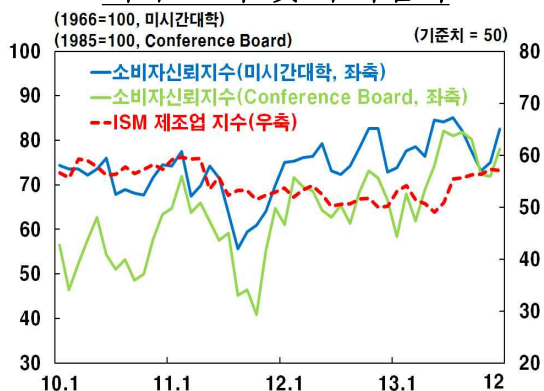
— 다만 정부부채한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

○ (유로지역)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지속, 글로벌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고용 부진, 디레버리징 장기화 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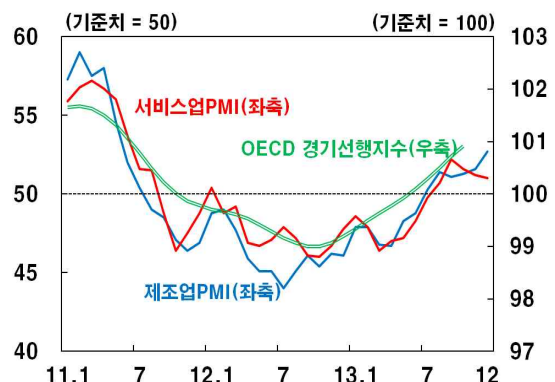
- ECB의 금융기관 종합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 결과에 따라 디레버리징이 심화될 가능성

미국 소비 및 투자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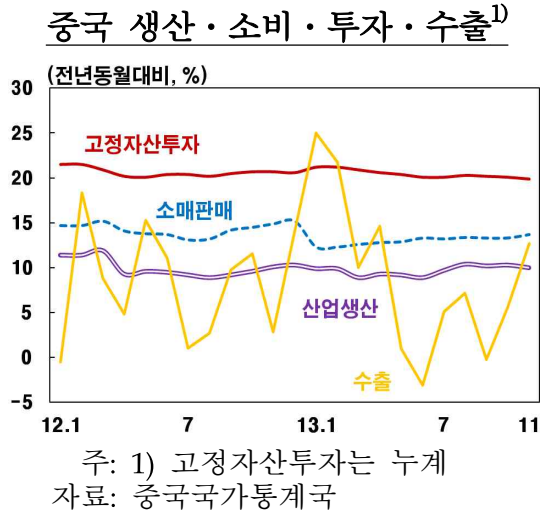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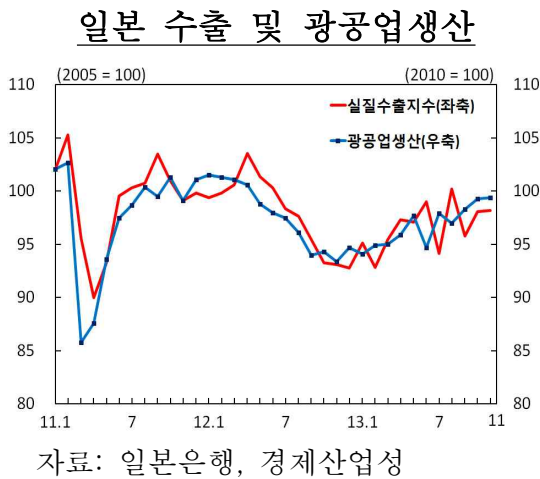
자료: ISM, 미시간대학 등

유로지역 PMI 및 경기선행지수



자료: OECD, Markit

- (일본) 지난해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4월, 5%→8%)에 따른 성장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강구
- (중국)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질적성장을 위한 경제개혁 추진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 예상
 - 중국정부는 질적 성장을 중시하면서도 성장률이 과도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



② 국제유가

□ 국제유가는 수급여건 호조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될 전망

- 다만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경제의 회복세 강화 등이 가격상승 요인으로 잠재

국제유가 전망¹⁾

		(달러/배럴)		
		2013	2014 ^e	2015 ^e
EIA			104.1	-
			103.9 (100.4)	99.2 (94.8)
CERA	108.8 (105.4)		103.6	103.5
OEF				

석유의 세계 소비 및 생산 전망

		(백만bpd)		
		2013 ^e	2014 ^e	2015 ^e
생 산 량	OPEC	37.0	37.1	37.4
	비OPEC	55.3	57.2	58.4
세계		92.3	94.3	95.8
소 비 량	OECD	45.2	45.3	45.4
	비OECD	47.1	48.6	50.1
세계		92.3	93.9	95.5

주: 1) Brent 기준, ()내는 두바이 기준, 2013.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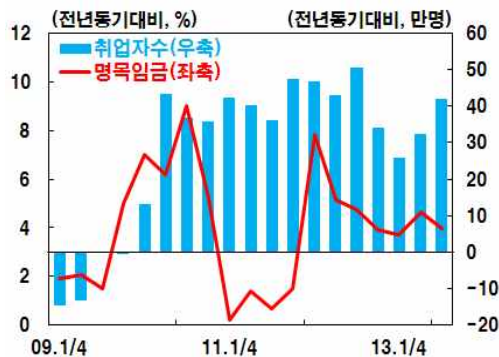
자료: IHS CERA

<국내 여건>

①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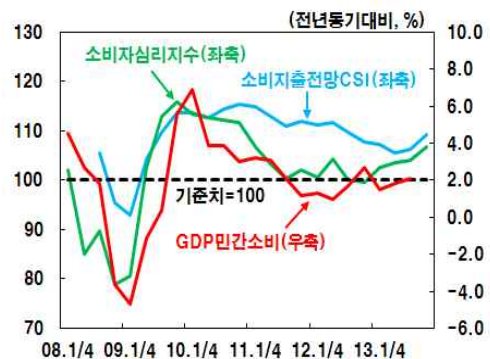
- 민간소비는 물가안정,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치(100)를 웃돌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향후 소비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정부 복지예산 증액도 소비여력 확충에 기여
 -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확대될 전망
- 다만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상환부담, 높은 전세가격 등이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취업자수 및 명목임금 추이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소비자심리지수 및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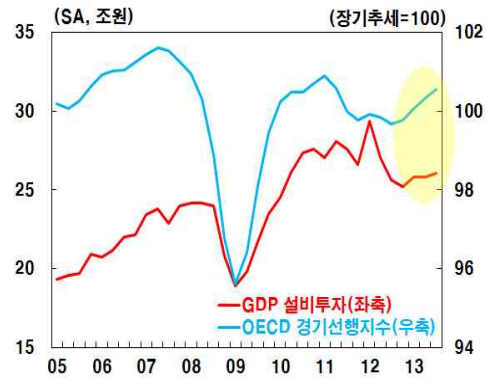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②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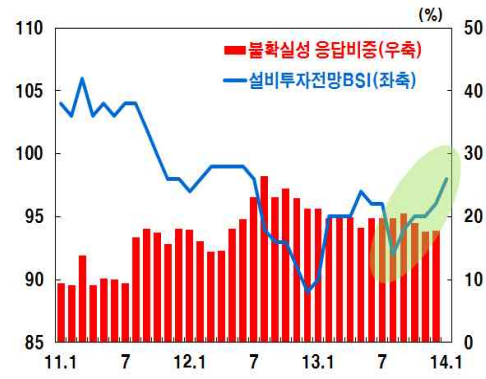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회복, 기업심리 개선 등으로 설비투자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전망
 - 정부는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에 역점을 두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화
- 다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 제조업 전반의 유희설비 등이 투자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설비투자 및 OECD 경기선행지수¹⁾



주: 1) 기간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OECD

설비투자BSI 및 불확실성 응답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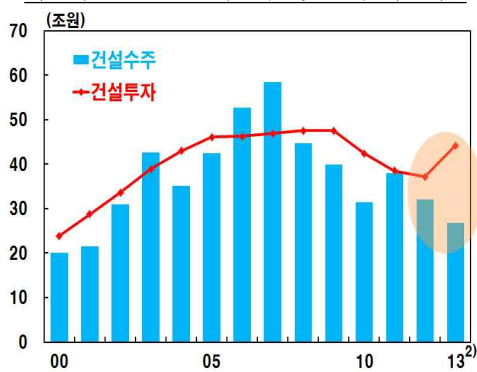


주: 1) 경영애로요인중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응답한 기업비중
 자료: 한국은행

③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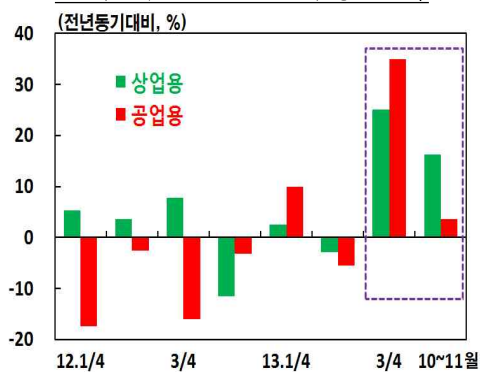
- (주거용 건물) 주택건설 수주 및 인허가 감소, 건설사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
 -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조절, 지방 혁신도시 아파트 공사 준공 등으로 향후 공사물량이 제한적
- (비주거용 건물) 산업단지 건설 확대, 대규모 공사 진척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토목) 정부의 SOC예산 축소, 토목건설 발주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

주거용 건설투자 및 수주액¹⁾



주: 1) 명목금액 기준
 2) 건설투자는 1/4~3/4분기중, 건설수주액은 1~11월중 증감률로 환산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비주거용 건물 착공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II. 경제전망

- ◇ 금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3.6%(2013.10월 전망시 3.6%)로 전제<2015년 4.0%>
- 세계교역 신장률은 5.3%(5.3%)로 전제<5.6%>
- ◇ 원유도입단가(기간 평균)는 배럴당 102달러(2013.10월 전망시102달러)로 전제<2015년 96달러>

전망 전제치

	2013 ^{e)}	2014 ^{e)}			2015 ^{e)}
		상반	하반	연간	
■ 세계경제성장률(%) ¹⁾	3.1	3.6	3.7	3.6	4.0
미 국	1.8	2.7	2.8	2.8	3.2
일 본	1.7	2.0	0.9	1.4	1.3
유 로	-0.4	0.9	1.2	1.0	1.4
중 국	7.7	7.5	7.6	7.6	7.5
■ 세계교역신장률(%) ¹⁾	3.8	5.0	5.6	5.3	5.6
■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 ²⁾	108	104	101	102	96
■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 ¹⁾	-1.0	-	-	-1.0	1.0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원유도입비중 : 중동산 80%, 여타 20%, 기간 평균, CIF 기준

1. 경제성장

□ GDP성장률은 금년중 3.8%(상반 3.9% → 하반 3.7%)로 지난해(2.8%)보다 높은 수준

○ 2015년에는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e)}			2015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1.9	3.7	2.8 <2.8>	3.9	3.7	3.8 <3.8>	4.0 -
민간소비	1.6	2.1	1.9 <1.9>	3.4	3.4	3.4 <3.3>	3.8 -
설비투자	-8.2	6.7	-1.1 <-1.2>	8.0	3.7	5.8 <5.7>	6.4 -
건설투자	5.2	8.0	6.7 <6.1>	3.5	0.0	1.6 <1.7>	3.1 -
상품수출	5.3	4.2	4.7 <5.5>	4.7	9.7	7.2 <7.2>	8.7 -
상품수입	3.3	3.7	3.5 <3.8>	4.4	9.5	7.0 <6.9>	9.3 -

주: < > 내는 2013.10월 전망치

2. 고용

□ 금년중 취업자수는 43만명(상반 46만명 → 하반 39만명) 내외 증가할 전망 (2015년 45만명)

○ 실업률은 3.0%, 고용률은 59.9%(OECD기준 65.2%) 수준

고용 전망

(만명, %)

	2013			2014 ^{e)}			2015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취업자수	29	49	39 <33>	46	39	43 <38>	45 -
증감 ^{1),2)}	(1.2)	(2.0)	(1.6)	(1.9)	(1.6)	(1.7)	(1.7)
실업률 ²⁾	3.4	2.9	3.1 <3.2>	3.2	2.9	3.0 <3.0>	3.0 -
(S.A.)	3.2	3.0	-	3.1	2.9	-	-
고용률 ³⁾	59.0 [63.9]	60.2 [65.1]	59.6 [64.5]	59.3 [64.7]	60.5 [65.6]	59.9 [65.2]	60.2 [65.9]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 > 내는 2013.10월 전망치

3) 15세 이상, [] 내는 15~64세(OECD기준)

3. 물 가

□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은 2.3%로 전망

-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 및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각각 2.7% 및 2.4% 상승 예상

물가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e)}			2015 ^{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소비자물가	1.4	1.2	1.3 <1.2>	1.7	2.8	2.3 <2.5>	2.8
농산물·석유류 제외	1.5	1.8	1.6 <1.5>	2.4	3.0	2.7 <2.7>	3.1
식료품·에너지 제외	1.5	1.5	1.5 <1.3>	2.0	2.7	2.4 <2.3>	2.8

주: 1) < >내는 2013.10월 전망치

4. 경상수지

□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50억달러로 예상(상반 265억달러 → 하반 285억달러)

- 2015년에는 450억달러 내외를 보일 전망

경상수지 전망

(억달러)

	2013			2014 ^{e)}			2015 ^{e)}
	상반	하반 ^{e)}	연간 ^{e)}	상반	하반	연간	연간
경상수지	298	402	700 <630>	265	285	550 <450>	450
상품수지	252	348	600 <540>	230	240	470 <400>	380
수출(통관)	2,765 (0.6)	2,832 (3.8)	5,597 (2.2)	2,900 (4.9)	3,040 (7.3)	5,940 (6.1)	6,360 (7.1)
수입(통관)	2,565 (-2.9)	2,591 (1.4)	5,155 (-0.8)	2,720 (6.1)	2,830 (9.2)	5,550 (7.7)	6,060 (9.2)
서비스·본원·이전소득	46	54	100 <90>	35	45	80 <50>	70
서비스수지	33	32	65 <50>	30	25	55 <30>	50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내는 2013.10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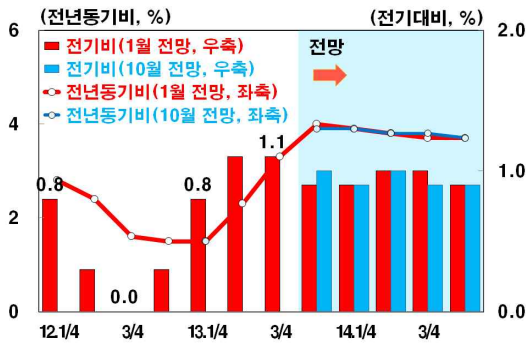
Ⅲ. 종합평가

① 경제성장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3% 후반 수준을 나타내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소비·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모멘텀이 유지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
- 금년중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1.8%p)와 수출(2.0%p)의 기여도가 대체로 비슷

GDP 전망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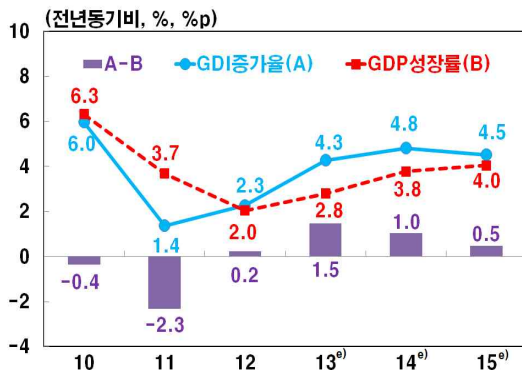
수출 및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¹⁾
(%, %p)

	2011	2012	2013 ^{e)}	2014 ^{e)}
▶ GDP	3.7	2.0	2.8	3.8
수출	1) 2.1	2) 1.3	3) 1.3	4) 2.0
내수	5) 1.5	6) 0.7	7) 1.5	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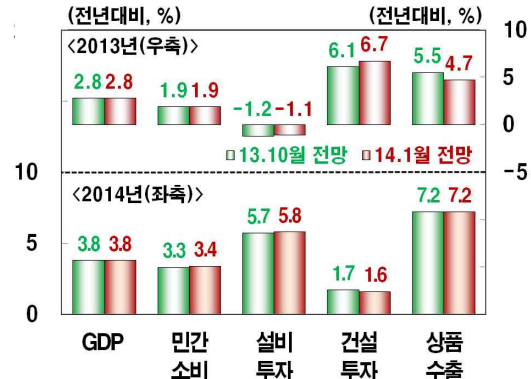
주: 1) I/O표의 수입유발효과를 부문별로 차감

- 국제유가 하락 등 수입단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지난해에 이어 국내소득(GDI) 증가율(4.8%)이 GDP 성장률(3.8%)을 상회
- 2013~14년중 GDP 성장률 전망치(2.8%, 3.8%)는 각각 지난 10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근 실적치 반영 및 국제원자재가격 하향 조정 등 긍정적 요인과 엔화 약세 등 부정적 요인이 상쇄

GDI 증가율 및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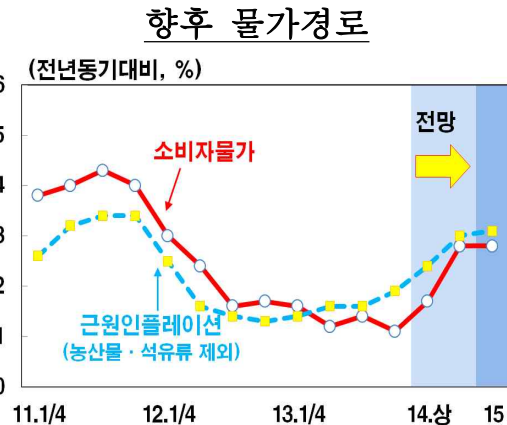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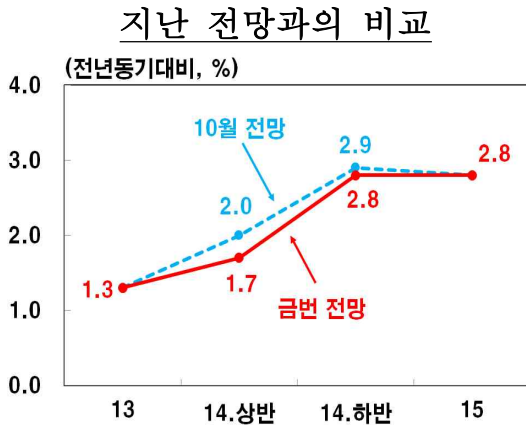


지난 전망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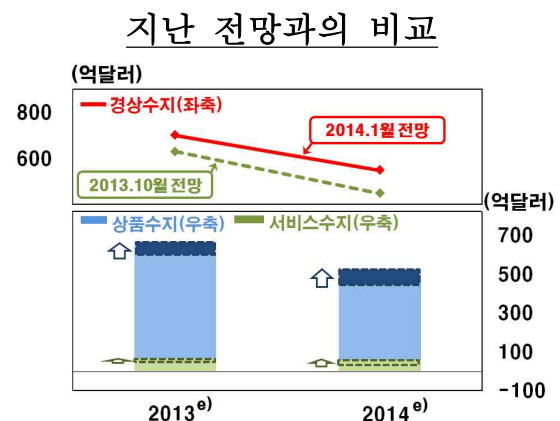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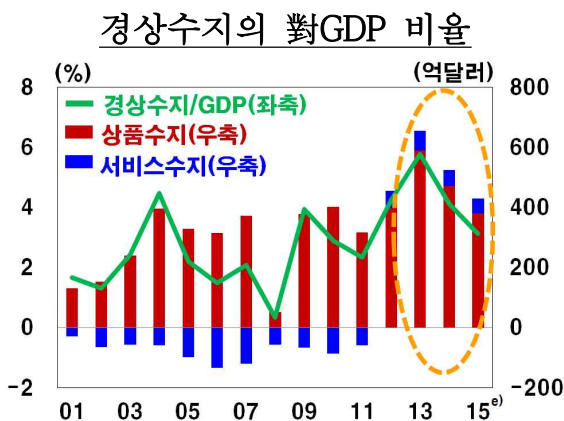
② 물 가

-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농산물가격, 집세 등 대부분의 공급요인이 상승압력으로 작용
 - 유가, 곡물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농산물가격은 장기추세수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반등이 예상
 - GDP갭률은 마이너스 폭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명목임금이 경기회복,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



③ 경상수지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3년 5.7~5.8%에서 2014년에는 4.1~4.2%, 2015년에는 3.1~3.2%로 하락
 - 2014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50억달러로 지난 10월 전망치에 비해 흑자 폭 확대



- 향후 성장경로에는 QE Tapering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및 엔화가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북한관련 지정학적 위험 확대 등 하방리스크와 미국 및 EU 등의 성장세 가속화 등 상방리스크가 균형을 이루어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 물가경로에는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가격 급등 등 상방리스크와 글로벌 경기회복세 둔화 등으로 인한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 하방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회의」 참석 결과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월 12일(日) 오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GHoS)* 회의에 참석하여 「레버리지비율 규제 기준서 개정안」, 「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수정안에 대한 공개협의안(consultative document)」 및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기준서 수정 및 일부 보완 방안」을 논의하였음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통할하는 기구(oversight body)이며, 회원기관의 수장이 참석함

BCBS는 G20 국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총 27개국의 42개 중앙은행감독기구로 구성되며, 은행감독 국제표준 결정 및 이행권고 등이 주요 임무임(우리나라는 2009.3월 가입)

- 김총재를 비롯한 GHoS 회원들은 BCBS가 마련한 방안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완화**하고 **업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적절하게 설계된 것**으로 평가하고 **승인·공표**하였음

(레버리지비율 규제)

- GHoS 회원들은 BCBS가 제출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기준서 개정안」을 **승인·공표**하였음

- BCBS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자본규제의 보완수단*(backstop measure)으로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12월 최초 기준서**도 공표하였으나, **2011년부터 시작된 모니터링과 병행운영(parallel run) 결과** 및 **2013년 중 업계와의 공개협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음

* 자본규제는 리스크에 기반하고 있어(risk-based) 리스크 평가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예: 리스크 평가 모형의 오류, 호황기에 리스크가 저평가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단순하며 리스크에 기초하지 않은(non-risk based)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자본비율을 보완하도록 함

** BCBS(2010.12월),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대형은행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 때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경기순환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text{레버리지비율} = \frac{\text{자본 (Tier1 자본)}}{\text{익스포저 (난내항목+난외항목)}} \geq 3\%$$

- 금번 승인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부록 1> '레버리지비율 규제 개정 기준서의 주요 내용' 참조)

- 증권금융거래* (SFT,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인 경우 상계된 금액을 익스포저로 산정함
 - * RP거래, 증권대차거래(Security lending and borrowing) 등을 의미함
- 난외항목은 바젤 II 표준방법(SA, Standardised Approach)에 따라 신용환산율(CCF, Credit Conversion Factor)을 적용*하여 익스포저를 산출함
 - * 난외항목의 성격에 따라 0%, 20%, 50%, 100%의 신용환산율(CCF)을 적용하되 최저 신용환산율을 10%로 함(10% floor). 이에 따라 무역금융은 20%의 CCF, 무조건부 취소가능약정은 10%의 CCF가 각각 적용됨
- 파생거래 익스포저 산출시 동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현금변동증거금(cash variation margin)을 차감함
- 은행이 대고객 청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청산소(CCP)와 실시한 파생거래는 익스포저에서 제외됨
- 신용파생매각의 익스포저 기준을 “명목액”에서 “최대손실가능액”(maximum potential loss)으로 수정함
- 바젤 II 와 동일하게 규제목적 상 연결대상인 자회사들만 익스포저 산정시 포함함(즉 회계목적 상 연결대상인 자회사들은 익스포저에 포함시키지 않음)
- 레버리지비율 산출 주기를 월말 수치를 사용한 분기평균에서 분기말 기준으로 변경함

(유동성 규제)

- 금번 GHoS 회의에서는 BCBS가 마련한 유동성 규제와 관련하여 ① 중장기 유동성비율 규제인 「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수정안」에 대한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 및 ②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인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관련 세 가지 사항 등을 승인하였음

① NSFR 규제 수정안 승인

- BCBS는 2010년말 「바젤III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안」의 일부로 NSFR 기준을 발표한 이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관찰기간(observation period)을 두고 주요 내용에 대한 수정작업을 실시하여 왔음
- LCR(2013.1월 기준서 발표)이 은행의 단기(30일) 유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라면 NSFR은 중장기 측면에서 은행 자금 조달구조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규제로서 LCR을 보완하는 지표로 개발됨

- 특히 경기호황기에 급격한 레버리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와 **단기도매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시키고 은행의 자금조달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됨
(<참고> 'NSFR 설계의 기본원리' 참조)

- 김총재를 비롯한 GHoS 회원들은 **금번에 제안된 NSFR 수정안이 2010년에 발표된 NSFR 초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우려들을 상당폭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된 것으로 평가**하였음
(<부록 2> '2010년 NSFR 초안과 비교한 금번 NSFR의 주요 수정 내용' 참조)

* 2010년말 NSFR 규제초안이 발표된 이후 NSFR 규제가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약할 가능성, NSFR 규제의 은행 영업모델 차이에 따른 차별적 영향 가능성 및 유동성 위기 방지 측면에서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참고>

NSFR 설계의 기본원리

- NSFR은 은행들의 자금조달구조 안정성을 도모하여 중장기 측면에서 은행의 유동성 사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도입된 규제비율로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NSFR = \frac{\text{안정적 자금조달 규모 (자본 및 부채} \times \text{가중치(ASF factor))}}{\text{안정자금 필요 규모 (자산 및 난외항목} \times \text{가중치(RSF factor))}} \geq 100\%$$

- **분자 : 자금조달의 안정성 평가 (안정성 ↑ : ASF factor (0%~100%) ↑)**

- **만기(funding tenor)** : 만기가 긴 부채일수록 안정적인 자금조달임
- **형태(funding type) 및 거래상대방** : 소매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한 예수금이 기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달한 도매자금 조달보다 안정적인

- **분모 : 운용자산의 유동성 가치 평가**

(유동성 가치 ↑ : 안정자금 필요규모 ↓ : RSF factor (0%~100%) ↓)

- **만기(asset tenor)** : 만기가 짧은(긴) 자산일수록 유동성 가치가 큼(낮음)
- **자산의 질(asset quality) 및 유동성 가치** : 처분제한이 없는 시장성 자산, 자산유동화, 매매 및 담보부 차입이 용이한 良質의 자산일수록 유동성 가치가 큼
- **은행 행태(behavior)** : 은행은 고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일정부분을 만기연장(roll over)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출 잔존만기가 짧더라도 유동성이 일반적으로 낮음

- 금번 GHoS 회의에서 **NSFR 규제 수정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승인**됨에 따라 BCBS는 **수정된 NSFR 공개협약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임 (의견수렴 기한 : 4월 11일까지)
(<부록 3> 'NSFR 수정안 요약' 참조)

② LCR 규제와 관련한 일부 사항 승인

- GHoS 회원들은 LCR과 관련한 ① **공시(disclosure) 기준 확정** ② **시장지표**

(market-based indicator) 기반 고유동성자산 정의 지침(guidance) ③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약정」(RCLF; Restricted-use of Committed Liquidity Facility)을 고유동성자산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승인하였음

- LCR은 은행이뱅크런 등 단기적인 현금인출 상황에서도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로서 2013년 1월 기준서가 공표되었으며, 2015년(60%)부터 2019년(100%)까지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LCR = \frac{\text{고유동성자산 (HQLA: High Quality Liquidity Assets)}}{\text{위기 상황에서 30일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純현금유출액 (현금유출액-현금유입액)}} \geq 100\%$$

① 공시(disclosure) 기준 확정

- LCR 공시 개시 시점은 LCR 시행 시점과 같은 **2015년 1월**로 하고, 공시 정보는 **일별(daily)**로 계산된 **LCR의 분기평균**으로 할 것을 명시*

* LCR의 공시주기(frequency of reporting)는 각국 은행의 재무제표 공시시점(분기별 또는 반기별)과 일치시키도록 명시

- 다만, 일부 은행들의 IT 인프라 등 준비 부족 등을 감안하여 일단 월별(monthly)로 계산된 분기평균 공시를 허용하되, 공시 개시 2년 후인 **2017년 1월부터는 반드시 일별로 계산된 LCR의 분기평균을 공시**하도록 결정하였음 (<부록 4> 'LCR 공시 양식' 참조)

② 시장지표(market-based indicator) 기반 고유동성자산 정의 지침 승인

- 현행 **LCR 기준서**에서는 발행기관의 신용도, 자산의 위험가중치 등을 기준으로 **고유동성자산을 정의하고 있는데 동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지표에 기반한 자산의 고유동성 여부 평가방법**을 개발함
- 동 지침은 감독당국이 (i) **특정자산을 LCR 기준서 상에서 허용한 고유동성자산에서 제외**하거나 (ii) **고유동성자산 등급을 하향조정** (Level 1 → Level 2)하는 데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임

③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약정」(RCLF) 도입 승인

- 당초 일부 국가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약정***」(RCLF: Restricted-use of Committed Liquidity Facility)을 **모든 국가의 고유동성자산 범위(Level 2B)****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음

* RCLF의 당초 도입 의도는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HQLA)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국가의 은행들에게 LCR 준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HQLA 대안 수단(ALA: Alternative Liquidity Approach)의 하나로 허용한 것임

** 현행 LCR 기준서상의 HQLA의 범위 : **Level 1** : 지급준비금, 국채 및 국채에 준하는 채

권, **Level 2A** : 회사채(AA-이상), Covered Bond, **Level 2B** : RMBS, 회사채(A+~BBB), 보통주

- 다만, 은행의 도덕해이(moral hazard) 유발 등 RCLF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일단 **몇몇 국가들이 1~2년 정도 운영**한 후 시행조건들이 잘 지켜졌는지를 검토(ex-post peer review)하여 **추가 수정여부를 평가**하는 보완대책을 도입함

* LCR 규제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시 외부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기보험(self-insurance)을 강제한 것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은 유사시 최종대부자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BCBS의 기본 입장임. 따라서 평상시 RCLF를 이용하는 것은 은행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시행조건을 엄격히 설계함

- 아울러 **RCLF의 도입 여부는 전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재량**에 맡김

(평가)

- 금번 GHoS 회의 결과와 관련하여 **Mario Draghi**(GHoS 의장 및 ECB 총재)는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레버리지비율에 대한 최종합의는 **바젤Ⅲ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significant step)**라고 평가하고 레버리지비율은 리스크 기반 자본규제의 중요한 보완수단으로서 유동성규제(LCR, NSFR)와 함께 은행이 외부충격에 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함

- **Stefan Ingves**(BCBS의장 및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합의로 인해 **원대한 개혁과제의 완료 및 동 과제의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이행**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함

- 금번 GHoS 회의 결정으로 **국내은행들의 규제이행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레버리지비율 규제 기준서 개정으로 **무역금융(trade finance)에 대한 신용환산율(CCF)이 100%에서 20%로 축소**됨으로써 **무역위축 우려가 해소**됨

- **산출주기**가 종전의 매월 월말 수치를 산출해야 하는 분기평균 기준에서 **분기말 기준으로 변경**되어 **국내은행들의 전산시스템 변경 부담이 경감**됨

- 또한 NSFR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모기지 대출에 대한 RSF factor를 85~100%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나, 논란 끝에 **65%로 하향조정***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국내은행들의 NSFR 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모기지 대출은 만기전에라도 증권화를 통해 쉽게 현금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대출자산에 비해 유동성 가치가 높다는 점을 RSF factor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

- **김총재**는 상기 규제들이 신흥시장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회의에서 주요 신흥시장국 총재들과 함께 **신용환산율(CCF) 축소 적용 필요성**과 **모기지**에 대한 **RSF factor 하향조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한국은행과 국내 감독당국**은 GHoS 회의 내용 결정 과정에서 **국내은행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당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규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국내은행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계획**임

<부록 1>

레버리지비율 규제 개정 기준서의 주요 내용

① 서론(1~5항)

- 규제 도입 배경: 급격한 디레버리징 방지
- 레버리지 규제 목적: 은행부문 레버리지 축적 방지, 자본규제 보완
- 주요 일정: 2015년부터 공시, 2017년 중 최종조정, 2018년부터 시행

② 레버리지비율 정의 및 최소규제비율(6~7항)

$$\text{레버리지비율} = \frac{\text{자본 (Capital measure)}}{\text{익스포저 (Exposure measure)}} \geq 3\%$$

③ 연결 범위(8~9항)

- 연결 범위는 바젤 II와 동일하게 규제목적 상 연결대상인 경우에만 포함

④ 자본(10~11항)

- 레버리지비율 분자로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체계에서 정의한 기본자본(Tier 1 자본) 사용
-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과 총자본(Total Regulatory Capital) 사용가능성도 이행기간 중 검토 예정

⑤ 익스포저(12~39항)

- 일반원칙: 파생상품을 제외한 난내 익스포저는 충당금과 평가조정을 상계하여 산출, 예금과 대출은 상계 불허, 담보·지급보증·신용리스크 완화수단의 익스포저 축소 효과 불허
- 레버리지비율 분자인 익스포저는 「난내 익스포저 + 파생 익스포저 + 증권금융거래(SFT) 익스포저 + 난외항목」으로 구성

(a) 난내 익스포저(15~17항)

- 정의: 파생거래와 증권금융거래(SFT)를 제외한 난내 익스포저는 모든 B/S 자산을 포함
- 공제: 일관성을 위해 자본공제 항목은 익스포저에서도 공제

(b) 파생 익스포저(18~31항)

- 파생 익스포저는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 잠재익스포저(add-on)」로 산출
- 적격 상계계약이 있는 경우 상계 가능
- 담보 불인정, 다만 현금변동증거금(cash variation margin)의 익스포저 축소 효과는 인정
- 은행이 대고객 청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청산소(CCP)와 실시한 파생거래는 익스포저에서 제외
- 신용파생매각은 “최대손실가능액”(maximum potential loss)을 파생 익스포저로 인식하며 신용파생매입과 상계 가능

(c) 증권금융거래(SFT) 익스포저(32~37항)

- SFT 익스포저는 「순자산(상계된 금액) + 거래상대방 리스크 익스포저(증권·현금대여 - 현금·증권 차입)」로 산출
- 은행이 중개한 SFT의 경우에는 상기 식에서 순자산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 리스크 익스포저만 인식

(d) 난외 항목(38~39항)

- 난외 항목은 바젤II 표준방법(SA)에 따른 신용환산율(CCF)을 적용하여 익스포저를 산출하되 최저 10% CCF 적용(예: 무역금융은 20% CCF)

6 공시(40~58항)

- 은행은 2015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을 공시
- 공시는 요약비교표, 공통공시양식, 중요 불일치 내역 설명, 여타 공시 사항을 포함
- 공시 주기는 재무제표 공표 주기와 동일(분기 또는 반기)하나, 대형은행은 분기로 공시
- 은행은 재무제표와 레버리지 익스포저 간 차이, 레버리지비율의 기간별 차이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

7 이행 기간(59~61항)

- 레버리지비율은 감독 모니터링 기간(2011~2012), 병행운영 기간(2013~2016)을 거쳐 2017년 최종 조정한 후 2018년부터 시행하며, 공시는 2015년부터 시행
- 병행운영 기간 동안 레버리지비율의 설계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검토

2010년 NSFR 초안과 비교한 금번 NSFR의 주요 수정 내용

□ 기본구조는 2010년 NSFR 규제의 초안을 따르되 세부 설계(design)와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

① 은행의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을 촉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자금조달인 **예금 수신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 마련

○ NSFR의 RSF(분모) 항목에서 종전에 100% factor를 적용하였던 자산중 실물경제 지원효과가 큰 우량 모기지 등 대출자산(잔존만기 1년 이상)들을 분리해내고 이에 적용할 factor를 하향 조정

○ ASF(분자) 항목에서 소매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예금은 전통적으로 은행의 가장 안정된 자금조달원이라는 인식 하에 잔존만기가 1년 이내라도 동 예금에 대한 ASF factor를 상향 조정

② 만기가 도래(1년 이상 → 1년 이내)하면서 발생하는 **절벽효과(cliff effect)***를 완화하기 위해 **잔존만기 6개월~1년 구간을 추가**하는 등 자산(RSF)과 부채(ASF)의 **잔존만기 1년 이내 구간을 세분화**

* 예를 들어, 2010년 초안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의 경우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일 때는 100%의 ASF factor를 부여하다가 잔존만기가 1년 이내가 되면 0%의 ASF factor를 부여함으로써 ASF(분자)가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함

③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Short-term matched funding**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됨에 따라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잔존만기가 1년 이내의 단기라 하더라도 안정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설계

* **Short-term matched funding의 부정적 사례** : 은행이 단기 도매시장(short-term wholesale funding markets)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슷한 만기의 단기대출로 이용하는 경우 시장에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단기 조달자금은 만기에 즉시 상환(easily withdrawn)해야 되는 반면, 단기대출은 만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은행이 유동성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

④ 자산이 담보설정 등으로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asset encumbrance)** 일 경우에는 유동성 가치가 크게 낮아지므로 동 자산에 대해 **RSF factor를 높임**

⑤ **고유동성자산, 영업예금(operation deposits)** 등에 대한 RSF factor, ASF factor 적용 기준을 **LCR 규제와 일관**되도록 변경

NSFR 수정안 요약

RSF factor	자산	ASF factor	부채 및 자본
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폐와 주화 - 지급준비금(필요·초과 기준 포함) -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의 은행(건전성규제 대상) 대출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자본 합계 (잔존만기 1년 이하 Tier2 자본 제외) - 유효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기타자본 및 부채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제한 없는 Level 1 자산 (0% RSF 범주 내 자산 제외) 	9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 및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안정 예금 (수시입출식 및 잔존만기 1년 이내 정기 예금)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제한 없는 Level 2A 자산 	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 및 중소기업으로부터의 불안정 예금(수시입출식 및 잔존만기 1년 이내 정기 예금)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제한 없는 Level 2B 자산 - 6개월~1년 이내 동안 처분불가능한(encumbered) 고유동성자산 - 잔존만기 6개월~1년 이내의 은행(건전성규제 대상) 대출 - 他금융기관에 예치한 영업예금 -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잔존만기 1년 이내의 모든 자산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융기업, 정부, 공공기관, 다자국가개발은행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잔존만기 1년 이내) - 영업예금 - 기타 잔존만기 6개월~1년 이내 자금조달 (금융기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조달자금 포함)
6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존만기 1년 이상, 위험가중치 35% 이하인 처분제한 없는 주거용 모기지 대출 - 기타 잔존만기 1년 이상, 위험가중치 35% 이하인 처분제한 없는 대출¹⁾ 	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부채 및 자본 항목
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존만기 1년 이상, 위험가중치가 35%를 초과하는 처분제한 없는 기타 대출¹⁾ -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처분제한 없는 시장성증권 - 금 등 실물 거래상품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이상 처분불가능 모든 자산 -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 항목 		
미인출 금액의 5%	<p>[난외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불능 및 조건부 취소가능한 신용·유동성 공여 약정 		
국가 재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우발성 채무 		

주: 1) 잔존만기 1년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 제외

LCR 공시 양식

[자국 통화로 작성]		가중치 적용 전 금액 (평균)	가중치 적용 후 금액 (평균)
고유동성자산			
1	고유동성자산 규모		
현금유출액			
2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		
3	안정적 예금(stable deposits)		
4	불안정 예금(less stable deposits)		
5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		
6	영업예금(operational deposits)		
7	非영업예금(non-operational deposits)		
8	기타 무담보부 자금조달		
9	담보부 도매자금조달		
10	추가 현금유출액		
11	파생 익스포저 및 기타 마진 콜로 인한 현금유출액		
12	금융상품의 자금조달능력 상실 관련 현금유출액		
13	신용 및 유동성 약정		
14	기타 계약상 자금제공 의무		
15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의무		
16	현금유출액 합계		
현금유입액			
17	담보부 자금대여 (예: reverse repo)		
18	정상 익스포저로부터 현금유입액		
19	기타 현금유입액		
20	현금유입액 합계		
			조정 후 금액
21	고유동성자산 합계		
22	순현금유출액		
23	Liquidity Coverage Ratio		